

카사 바트요의 造形的 特性과 가우디의 建築的 思考 研究

A Study on Design Characteristics in Casa Battlo and Gaudi's Philosophy of Architecture

김대년*
Kim, Dae Ny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Gaudi's philosophy of architecture through an analysis of the design characteristics in his remodeling of Casa Battlo.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lated to Casa Battlo as well as a field study in Barcelona to see the building were made for this study. The conclusions were as follows; Casa Battlo i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Gaudi's attempts at creating a surreal atmosphere and should be evaluated in light o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1) Casa Battlo as a remodeled house presented its own restrictions to Gaudi that he overcame by introducing characteristic design elements into the remodeling process; 2) the achievement, a perfect sculpture expressing continuity through a gorgeous colour scheme using different materials and design motifs with a dynamic spiral shape, originated from Gaudi's observations of nature and his experiences working in modeling studios; 3) a visualized embodiment of Gaudi's naturalism and functionalism through the impression of perpetual movement and continuity as formative symbols of genesis, life, death, and transmigration of the soul, originated from Gaudi's personal experiences of the early deaths of several close family members; 4) the design is meant to show the same processes of creation used by nature rather than a mere imitation of nature. Gaudi was not only a person dedicated obsessively to his profession as an architect, but also a rationalist fundamentally in the way he operated. It was expected that this study could be employed as a small stimulus to challenge the paradigm of housing remodeling projects -a hot issue in today's Korea- especially in their philosophical aspect.

Keywords : Casa Battlo, Gaudi, philosophy of architecture, design characteristics

주요어 : 카사 바트요, 가우디, 건축적 사고, 조형적 특성

I.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가우디(Antoni Gaudi i Cornet)는 1884년부터 현재까지 건축되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the Sagrada Familia) 성당을 설계한 사람으로 시대와 양식을 초월한 천재적인 건축가로 평가받고 있다¹⁾.

가능성, 경제성, 심미성, 개성을 추구하면서 기술

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건축은 인간의 삶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발전을 구체화시킨 실체이다. 시대적 정신과 욕구가 표현된 상징으로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건축은 19세기 후반부터 과학의 발전과 사회변화를 수용하면서 실험적 시도와 사상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과거 전통양식의 배제와 새로운 형태의 창조를 목표로 프랑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에 전파된

*서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건축학과 교수, 박사

1) 1969년 스페인은 가우디의 17개 작품을 국립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1984년, 구엘 공원, 구엘 궁전, 카사 밀라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아르누보²⁾ 식물형태에 기본을 둔 곡선 표현이 적용되면서 경직되고 기하학적인 기존의 건축형태와 대조를 이루었다.

가우디는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카탈로니아의 언어부흥, 역사연구, 토착예술 및 공예를 부활시키기 위한 스페인 모데르니즘(Modernismo)의 대표적 건축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우디를 아르누보 건축가로 지칭하는데 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가우디의 건축이 동시대의 건축이 취한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고딕에서 바로크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아프리카의 무어(Moor) 양식, 동양의 자연주의에 영향을 받은 듯하면서도 그만의 독창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³⁾.

이와 같은 이유로 가우디를 건축역사의 어떤 틀에 끼워 맞추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가우디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과 미국, 일본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연구도 적으며 연구방법에 있어서 현장답사나 현지에서의 자료수집보다는 2차적인 문헌에 의존하며 연구대상이 광범위하여 심도 있는 연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 현지에서의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해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와 조형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우디 건축 절정기의 리모델링 주택인 카사 바트요(Casa Battlo)를 심층분석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를 카사 바트요의 조형적 특성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통한 사례연구가 병행되었다. 문헌연구는 스페인 왕립 가우디 건축연구소⁴⁾에서 입수한 자료를 중심으로 가우디의 성장배경과 삶, 건축적 사고와 주택작품의 특징, 카사 바트요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현장답사⁵⁾에서

는 사진촬영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리모델링 내용을 확인하고, 카사 바트요에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해석하였다. 연구대상을 카사 바트요로 정한 이유는 이 주택이 가우디 건축의 절정기 작품이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II. 가우디의 성장배경과 삶

1. 출생부터 건축학교 졸업까지의 가우디

가우디는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역의 리우돔(Riudoms)에서 구리가공업에 종사하던 아버지 Francesc Gaudí Serra와, 레우스(Reus)에서 같은 업종을 하던 집안의 딸인 어머니 Antonia Cornet Bertran의 2녀 3남 중 막내로 1852년 6월 25일 오전 9시 30분에 태어났다⁶⁾.

그의 형제들은 모두 요절하였으며, 가우디 역시 어렸을 때 병약하여 집안은 항상 우울하였다. 가우디는 5살 때부터 관절염이 심하여 리우돔 근처의 포도농장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토래이들과 뛰어놀지 못하고 혼자서 자갈이나 수숫대로 무엇을 만들거나 곤충이나 도마뱀을 관찰하면서 지내곤 하였다. 어린 가우디는 농장에서 ‘곡선으로 구성된 거미줄을 보았으며, 아름다운 곡선을 지닌 나리꽃, 양귀비꽃을 보았고, 매혹적인 나선형 달팽이집을 보았으며, 나무

4) 정식 명칭은 Biblioteca, Arxiu i Museu d'Arquitectura de la Reial Catedra Gaudi이고, 바르셀로나 페드랄베스(Avinguda de Pedralbes)의 가우디 작품(1884-1887년)인 구엘빌딩(Gate House Bulding Pavellonside la Finca Guell)을 사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공과대학교 건축대학 가우디학과(Reial Catedra Gaudi de la Universidad Politecnica de Catalunya)의 학과장인 바세고다(Joan Bassegoda i Nonell)가 소장이며, 1956년 설립된 바르셀로나 건축고급학교 특수학과가 전신(前身)이다.
5) 2002년 3월부터 일부공간의 공개를 시작한 카사 바트요는 사진촬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본 연구자는 가우디 연구소의 연구원 자격으로 건물답사(2003.3.20-4.25)와 인터뷰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6) 가우디 출생관련 기록은 레우스 소재 Saint Peter교회의 문서에 출생 다음날 침례의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이다. ‘가우디 협회’에 의하면, 가우디가 태어난 Sant Joan의 Carrer의 단층집은 1903년에 철거되고 4층 건물이 들어섰다. Joan Castellar-Gassol(2001), Gaudi; The Life of Visionary, p.24.

2) 프랑스의 아르누보(Art Nouveau), 독일의 유겐트스틸(Jugendstil), 오스트리아의 세션션(Secession)은 스페인에서는 모데르니즘(Modernismo; Modernism)라는 명칭으로 전파되었다.

3) Ju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Triangle Postalsl, Barcelona Spain, p.39-40.

위로 기어오르는 뱀을 보았고, 나무기둥이 서로 휘감긴 올리브 나무를 보았다. 농가의 굴뚝은 무장한 병사로 보였고, 사탕수수 줄기는 창으로, 넓은 잎사귀는 방패 또는 캐노피로, 양치기의 혀간은 아름다운 저택으로, 사이프레스 나무는 성당 기둥으로 보였다.’⁷⁾ 이러한 경험은 가우디에게 자연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었고, 세상은 곡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식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진정한 스승은 자연이라는 신념을 갖게 하였다.

가우디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작업장에 쌓여 있는 양조증류(釀造蒸溜)용 나선형 파이프들은 구불거리는 뱀처럼 보였으며⁸⁾, 밤에는 불빛으로 신화에 나오는 용처럼 보였다. 카사 밀라의 철 난간, 구엘 별장의 철문, 카사 바트요의 계단 난간과 지붕 용마루 등은 이 때의 경험과 직결된다고 해석된다.

구리가공업이 점차 기울어지면서 가우디 집안은 어려워졌다. 11세 때 직물공장에서 일하던 가우디는 Joan Tarrats의 도움⁹⁾으로 Escole Pies라는 5년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종교학, 기하학, 자연과학, 역학 등을 배웠다. 관절염으로 인한 고통, 독립적이고 내성적이며 고집 센 성격, 카탈로니아인과 다른 붉은 머리, 분홍빛 피부, 푸른 눈으로 인해서 가우디는 친구가 적고 선생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했으며 학교성적도 좋지 않았으나 가까운 친구 몇명과는 로마유적지, 고딕 수도원(Poblet) 폐허 등을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그 당시 정리해놓은 수도원 복원(復元) 내용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2. 건축가로서의 가우디의 삶

가우디는 Master Builder¹⁰⁾ 자격을 준비하고 학비 마련을 위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살았으나 당시사회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할 일이 없었다. 형과 어머니의 죽음, 궁핍한 가계, 건축공부, 군복무에 대한 부담으로 힘들게 지내던 가우디는 26세에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군복무 면제와 함께 점차 생활이 나아졌다. 키오스크 모형, 극장기둥과 천장, 진열장 디자인¹¹⁾을 맡아했던 가우디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있으며 손재주가 뛰어나다고 인정받기 시작했다.

가우디는 작업에 도면보다 모형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유명한다. 이는 어렸을 때의 구리가공 작업과 청년시절 Eudaldo Puntí 작업실에서의 목공, 주물(鑄物), 석고모형 제작 경험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경험으로 가우디는 기능공에게 논리적으로 작업지시를 할 수 있었으며 ‘천재적인 예술가와 무명의 기능공이 이루어낸 완벽한 결정체’¹²⁾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 가우디의 가족은 누나 Rosa가 3살짜리 딸을 남기고 요절하여(35세) 아버지와 조카뿐이었다. Josefa Moreu와 결혼하려고 한 적이 있던 가우디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건축에만 전념하여 30대 중반에 재능있는 건축가로 알려지면서 건축 계약이 증가하였다. 가우디 인생의 전환점은 유능한 건축가이며 신앙심 깊은 마토렐(Joan Martorell i Montells)이 가우디의 천재성을 알아보면서부터이다. 마토렐은 조교였던 가우디에게 균형에 대한 기하학적 해법을 가르쳤으며, 가우디를 구엘(Eusebio Guell Bacigalupi)¹³⁾에게 소개함으로써 건축가로서의 가우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연을 맺게 하였다.¹⁴⁾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책임건축가로 일하게 된 것도 마토렐의 천거에 의한 것이었다.¹⁵⁾

7) 가우디의 병력이나 자연관찰에 대해서는 32세 때 가우디의 조교였던 건축가 Joan Bergos i Masso(1894-1974)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다. 앞의 책 p.123.

8) 양조증류용 구리 파이프는 뱀처럼 구불거린다고 하여 서펜타인(serpentine)이라고 불리었으며 기하학에서는 서펜타인을 나선형(spiral or helicoidal shape)이라 한다.

9) 공장주인은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가우디를 발견하고 교육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허약했던 가우디에게 공장일은 무리였으며,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가우디처럼 가난한 집안의 자녀가 정규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었다.

10) 건축가(architect)라는 직업명이 있기 전의 호칭이다.

11) 가우디 전문가, George R. Collins의 조사결과이다.

12) Ju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p.11.

13) Eusebio Guell Bacigalupi는 무역업으로 성공한 Joan Guell Ferrer의 아들(1844년 출생)이며 1878년 파리 Universal Exposition에서 가우디 작품인 showcase를 본 이후 가우디에 관심을 가졌으며, 사망(1918년)하기까지 물적, 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의 천재성을 발휘하도록 도왔을 뿐 아니라 절친한 친구이었다.

14) 가우디는 구엘 별장(1884-1887), 구엘 궁전(1886-1891), 구엘 파크(1900-1914) 등을 짓게 되었다.

15)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Friar Manyanet 신부의 염원과 서점주인 Josep Maria Bocabella의 노력에 의해서 Francisco de Paula del Villar에게 설계를 의뢰하여 1882년에 초석이 놓여졌으나 지하실 기둥계획에 이견(異見)으로 Villar가 사퇴하면서 마토렐이 가우디를 천거하였다.

그 당시 부르주와 계층은 경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독특하고 사치스런 주택을 원했는데,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건축가로서 끊임없는 상상력을 지닌 가우디는 적임자이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가우디는 카사 비센스, 엘 카프리초¹⁶⁾, 팔라우 구엘, 비에스구아드, 카사 칼베트, 카사 바트요, 카사 밀라 등의 주택을 건축하게 되었다.¹⁷⁾

구엘 공원 한 쪽에 있던 집에서 아버지, 조카와 지내던 가우디는 아버지가 93세(1906년)로, 조카가 36세(1912년)로 사망하자 슬픔과 고독함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후 가우디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건축에만 혼신을 다하였는데 옷차림에 관심이 없는데다 아픈 발목과 다리에서 붕대가 흘러내리면 그 모습이 거지처럼 보였다고 한다.¹⁸⁾ 쉬지 않고 일한 열정적인 건축가, 가우디는 저술, 강연, 여행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방문객들에게는 자신의 건축적 사고와 이상을 설명하곤²⁰⁾ 하였다.

가우디는 1926년 6월 10일 74세로 사망¹⁹⁾하였다. 소박하고 수줍은 성격²¹⁾으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가우디의 시신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안치되었으나 1936년 7월 내전 중에 무정부주의자에 의해 관련자료²²⁾와 함께 파손되었다.

III.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와 주택작품의 특징

자신의 건축적 사고나 이론을 글로 남긴 것이 거의 없는²³⁾ 가우디에 대한 최초의 책은 1929년 라폴스(J. F. Rafols)²⁴⁾가 쓴 'Gaudi'로서 가우디의 전기(傳記)와 드로잉이 수록되어 있으며, 1965년 카사넬레스(E. Casanelles)에 의해서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1960년대 이후 가우디 관련서적들이 출판되었는데 가우디 건축 이념 및 사상에 대한 책은 1976년 푸츄 이 보아다(Puig i Boada)의 '가우디의 사상(El Pensament de Gaudi)'이 대표적이다. 제자들의 기록에 의해 책으로 출판된 가우디의 대표적인 건축적 사고는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것이 카사 바트요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5장에서 하고자 한다.

- * 독창성은 근본으로 돌아갈 때 창출되는데, 모든 것의 근본은 자연이다. 연속성이 쉽게 발견되는 자연의 형태는 직선이 아닌 곡선이다.²⁵⁾
- * 자연과 같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연에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다.²⁶⁾
- * 예술작품의 최고 수준인 조화는 작품을 강조 또는 장식하는 빛에서 비롯된다. 건축은 빛을 배열하고 정돈하는 작업이며, 건축의 생명은 대상물에 명확한 관념을 부여하는 색채이다.²⁷⁾
- * 예술이 과학을 풍요롭게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술은 남성이며 과학은 여성이다. 우아함과 절제됨은 유사하지만, 절제는 인색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²⁸⁾
- * 균형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균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건축가를 포기해야 한다.²⁹⁾

16) 다른 주택들은 바르셀로나에 위치하나, 엘 카프리초(Maximo Diaz de Quijano의 저택)는 스페인 북부 해안도시 Santander의 작은 마을 Comillas에 위치한다.

17) 재정적, 정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바트요와는 달리, 그의 부인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가우디와 자주 마찰을 일으켰으며 완공 직전에 가우디를 해고하였다. 밀라 부인은 성모 마리아상을 옥상에 계획한 가우디의 의도를 꺾고 건축비 과다를 이유로 지불을 거절하여 법정사건으로 비화되었다. 지불명령을 받은 밀라는 카사 밀라를 저당 잡혀서 건축비를 지급하였으며 가우디는 전액을 수도회에 기부하였다. 이것이 가우디가 부르주와 주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게 된 배경이다. Joan Castellargassol(2001), Gaudi; The Life of Visionary, p.91-93.

18) Torras I Bages 주교가 친구 Ignasi Casanovas 목사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다. 앞의 책 p.109

19) 1925년 1월, 가우디는 Tarragona 주교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1926년 6월7일 오후, 전차사고로 영세민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당시 그에게는 건포도와 땅콩, 낡은 성경책뿐이어서 그의 신분을 알아내는 건 불가능했다. 앞의 책 p.117

20) Bauhaus의 학생인 Ernst Neufert는 1918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자연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말을 가우디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앞의 책 p.110

21) 1910년에 파리에서 개최된 대규모의 가우디 전시회에 가우디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그의 성격을 알 수 있다.

22) 가우디 계승자 수그라니에스(Sugranes; 926-1937), 키타나(Quintana; 1939-1960), 보네트 가리 이 푸츄 보아다(Bonet Gari i Puig Boada; 1960-1992), 조르디 보네트(Jordi Bonet; 1992년 이후)의 노력으로 Sagrada Familia의 석고 모형이 제작됨으로써 성당건축이 재기되었다.

23) 일기형식의 장식론(1878년), article(1881년)이 전부이다.

24) 라폴스(1889-1965)는 가우디가 사그라다 파밀리아 건축에 몰두해 있을 때 2년 이상 작업에 참여한 건축가이다.

25) Juan Bassegoda Nonell(2000), Antonio Gaudi-Master Architect, p.9, p.16.

26) Juan Jose Lahuerta(2000), Pere Vivas, Ricard Pla, Casa Battlo, p.206. 앞의 책 p.16

27) Juan Bassegoda Nonell(2000), Antonio Gaudi-Master Architect, p.12.

28) 앞의 책 p.11.

29) 앞의 책 p.10.

표 1. 가우디 주택의 시기별 디자인 특성

시기	주택사례	건축연도	주택의 디자인 특성
1기	카사 비센스 (Casa Vicens)	1878-1885	* 무어 양식 ³⁰⁾ , 아랍, 기독교, 동양 건축양식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혼합과 변형을 시도한 실험적인 시기로, 복잡한 자연을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로 환원시킨 경향이 짙다.
	엘 카프리초 (El Capricho)	1883-1885	* 카사 비센스 ³¹⁾ 는 다양한 색의 사각형 타일을 이용한 모자이크 기법 ³²⁾ , 꽃문양 모티프의 철문이 특징이며, 엘 카프리초는 카사 비센스와 공간구성기법은 다르나 대비되는 색의 모자이크 기법은 유사하다. 이와는 달리, 팔라우 구엘 ³³⁾ 은, 갈색 석회석 외벽, 대비 색과 형태의 옥상 탑, 환상적 천장과 자유스런 공간 개념 ³⁴⁾ 이 도입된 중정 홀이 특징이다.
	팔라우 구엘 (Palau Guell)	1886-1891	
2기	비에스 구아드 (Bellesguard)	1900-1902	* 동물뼈에 대한 해부학적 연구가 실내 가구나 장식에 구현되고, 기둥과 아치에 연속된 곡선장식이 등장, 아르누보 경향을 보이는 시기이다. * 비에스구아드는 고딕 파사드와 대비되는 실내, 백색 공간에 이용된 푸른색 타일, 화려한 색의 별모양 스테인드글라스,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최상층이 특징이며, 카사 칼벳은 사암과 철의 자연색이 노출된 외관과 화강암과 벽돌의 자연색에 푸른 타일이 강조된 실내가 특징이다.
	카사 칼벳 (Casa Calvet)	1898-1904	
3기	카사 바트요 (Casa Batllo)	1904-1906	* 다양한 요소를 연속성으로 승화시킨 조각적인 형태, 3차원 공간에 시도한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아르누보, 환상적인 색과 빛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써 가우디의 독창적인 양식이 확립된 시기이다.
	카사 밀라 (Casa Mila)	1906-1910	* 카사 바트요는 리모델링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가우디의 절정기의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이며, ³⁵⁾ 카사 밀라는 물결처럼 디자인되어 살아 있는 유기체처럼 보이는 석재 파사드, 상상력이 넘치는 옥상의 굴뚝들, 채색 벽으로 둘러싸인 2개의 중정으로 채광과 환기를 기능적으로 해결한 마지막 주택작품이다.

30) Moorish양식은 모슬렘양식과 기독교양식의 혼합된 스페인 건축양식이며 무데하르(Mudejar)양식이라고도 한다.
 31) 타일판매업 거부인 Manuel Vicens의 여름별장으로 가우디가 독자적으로 건축의뢰를 받아 완성한 첫 작품이다.
 32) 가우디는 기하학적인 배스를 연속시키고 벽돌, 돌, 타일로 활기있게 표면처리하고 꽃, 파충류 소재의 철작업을 통해서 건물 전체를 조화시키는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냈다. 당시 카탈로니아에서는 대조적인 패턴의 타일을 벽돌 표면에 붙이는 무어 양식의 장식기법이 모데르니즘으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건축을 추구하였다.
 33) 구엘 공전에는 마구간이던 지하실의 벽돌기둥에서부터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공전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중정홀 대리석기둥까지 서로 다른 디자인의 기둥이 40개 이상 있다.
 34) 르코르뷔제의 ‘자유스런 평면구성’ 보다 30년 앞섰다.
 35) 카사 바트요에 대한 내용은 논문 전체에서 다루어지므로 이 표에서는 생략하였다.

가우디 작품의 시대구분은 작품양식별로 구분하거나, 단순히 시기별로 구분하는 등 연구자에 따라 다른데 이는 비슷한 시기의 작품이면서도 가우디의 끊임없는 창의력에 연유하여 명백히 차별화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작품양식을 기준으로 보면, 초기작품기(Early Work/1870-1895)→동양문화 접목기(Eastern Influence/1883-1888)→신고딕기(Neogothicism/1883-1909)→자연주의기(Naturalism/1895-1916)→기하학 적용기(Straight-line Geometry/1908-1917)→가우디 고유양식 정착기(Definitive Style/1892 -1926)로 구분된다.³⁶⁾ 또 조형성을 중심으로 기하학적 조형시기→장식적 조형시기→조각적 조형시기→종교적 상징주의시기로 나누기도 하며, 시기를 기준으로 1기; 1878-1882년, 2기; 1883-1900년, 3기; 1900-1917년, 4기; 1918-1926년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³⁷⁾

본 연구의 대상인 가우디의 주택을 대상으로 시기별 디자인 특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IV. 리모델링 카사 바트요의 역사적 배경

카사 바트요는 가우디의 주택건축으로 1906년에 완성된 유일한 리모델링 작품이다. 카사 바트요에서 Josep Batllo Casanovas 가족이 언제까지 거주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나 1950년의 보수작업, 1958년의 가우디 가구매각³⁸⁾등으로 미루어 1950년대까지로 추측되고 있다. 리모델링 이전의 주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조셉 바트요는 1901년 바르셀로나 그라시아 거리 43번지의 5층 건물을 Luis Sala Sanches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건물은 1877년에 건축되었으며, 15 m×50 m의 장방형 대지로서 거리에 면한 건물의 폭은 15 m이고 지하 1층(중앙 일부 지하 2층)에 지상 5층으로 옥상에 난간이 설치된, 19세기에 유행하던 신고전주의 양식³⁹⁾으로 주변의 건물과 유사하였다. 지하층과 1층은 15 m×50 m로 대지 전체에 계획되었

36) 앞의 책 p.6-p.143.
 37) George R. Collins(2003), Gaudi, p.125.
 38) 가우디의 가구들은 구엘 공원 내의 가우디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왕립 가우디 건축연구소 Mario의 증언과 함께 현장방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다.

고 2층 이상은 15 m×35 m이었다. 용도를 보면, 지하층은 창고와 사무실, 1층은 상점과 창고, 2-5층은 층마다 두 가구씩 8가구용 임대아파트이었다. 이 건물은 1891년 Cerda에 의해서 전체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던 조셉 바트요는 건축허가에 문제가 생기자 계획을 변경하여 가우디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하였다. 카사 바트요의 리모델링 시기는 1905-1907년으로 알려진 적이 있으나⁴⁰⁾ 1967년 마루티넬(Cesar Martinell)⁴¹⁾ 연구보고서 이후, 1904-1906년으로 정정되었다. 연구보고서의 근거자료는 1904년 10월 26일 가우디가 바르셀로나 시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용 도면, 1906년 10월 13일에 제출한 임대아파트 허가신청서, 1906년의 바르셀로나 건축상 후보작품⁴²⁾ 서류이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정정되었다.

리모델링 이후 카사 바트요는 1층 전면은 상점으로, 후면은 텍스타일 잡지사의 창고로, 2층은 바트요 가족의 주택으로 이용되었고⁴³⁾, 3-6층은 층마다 2가구씩 8가구의 임대 아파트로 이용되었다. 카사 바트요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는 1950년의 보수공사와 1958년의 가우디 가구의 매각, 1963년의 Iberia Insurance Company의 건물 매입과 회사 사옥으로 전용된 것을 들 수 있다. 1996년에 카사 바트요를 매입하여 최근에 건물의 복원공사를 실시한 Candy 회사 추파츄스(Chupe Chups)가 현재 소유주이며, 2002년 3월부터 바트요 가족이 사용하던 주택만을 일반에게 개방하고 있다. 개방이 금지된 1,4층은 카사 바트요 관련 사무실, 3층은 바트요 자손의 주택으로 사용하며, 5,6층과 다락은 신희부부에게 임대하

고 있다.⁴⁴⁾

V. 카사 바트요의 조형성과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카사 바트요의 현장답사를 통한 리모델링 내용의 확인과 함께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가 외관과 실내에 구체화된 부분에 대하여 해석하고자 한다.⁴⁵⁾ 카사 바트요는 리모델링 주택이어서 가우디의 구조역학을 논리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없이 구조와 관계가 크지 않은 공간조형이 시도되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⁴⁶⁾, 카사 바트요의 디자인 의도는 19세기 중반 고조되었던 해저 또는 동굴탐사와 관계가 깊은데, 연구자의 현장답사에서 파사드, 파사드에서 2층 응접실로 오르는 계단홀, 응접실, 식당공간에서 동굴이나 바다의 이미지를 당시의 시대적인 안목으로 근대화, 추상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카사 바트요의 리모델링 작업은 지하1층, 지상5층이었던 기존건물에 2개 층을 높여 6층과 다락을 추가한 것, 전면과 후면 파사드⁴⁷⁾를 전혀 다른 이미지의 외관으로 바꾼 것, 중앙 계단실 개방으로 중정을 확장시킨 것, 2층을 바트요 가족의 주택으로 개조하고⁴⁸⁾ 3-6층에 임대아파트를 계획한 것, 다락과 옥상을 추가한 것이다. 카사 바트요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가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4) 2003. 4.21, 카사 바트요 매니저 Jordi와의 면담결과.

45) '비평가의 개인적 체험을 명료화하는 비평은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한 판단과 체험의 근거를 제시하여 그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성 요구된다.' 는 이범재(1989)의 건축비평론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 상황분석과 논리적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46) Ju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p.26-29.

47) 이 스케치 <그림 2>는 카사 바트요 리모델링 작업에서 가우디가 그린 것으로 유일하게 남은 자료이다. 1936년 사그라다 파밀리아이 불타면서 가우디의 모든 작품들이 소실되었으나 이 스케치는 바르셀로나 건축학교 주관의 '드로잉전'에 출품하고 돌려받지 않아서 그 학교의 古文書室에서 발견되었다. 이 드로잉을 보면, 가우디의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타워의 위치 등이 현재와 달라 리모델링 작업의 초기 스케치임을 알게 한다. 그림2 출처: 앞의 책 p.201.

48) 스페인에서는 우리나라의 1층을 ground Level, 2층을 1층이라고 하나, 본 연구에서는 층수 지칭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려고 우리나라 식으로 층수를 지칭하였다.

39) 리모델링 이전 건물의 전면 사진은 남아있지 않으며, 푸쥬 이 카타팔크(Puig i Cadafalch)의 카사 아마트레(Casa Amatller, 1898-1900)가 1900년 잡지에 실리면서 오른쪽에 일부 보이는 것이 유일한 사진으로(바세고다의 증언)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출처: Ju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p.21.

40) 1929년에 출판된 라폴즈의 저서를 근거로 하였다.

41) Cesar Martinell 작업실을 방문하면서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를 정리하였다(1976년 출판된 '가우디의 사상'에 수록되어 있음). Juan Bassegoda Nonell(2000), Antonio Gaudi-Master Architect. Pablene Press Publishers,

42) 1906년 바르셀로나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은 가우디의 카사 칼벳(Casa Calvet; 건축연도 1898-1904)이다.

43) 부엌은 계단 가까이의 1층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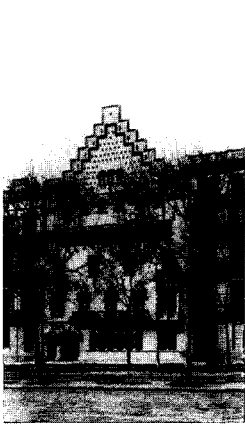


그림 1. 카사 아마트레에 우측에 일부가 보이는 리모델링 이전의 카사 바트요 (1904년)



그림 2. 리모델링을 위한 전면 파사드의 아이디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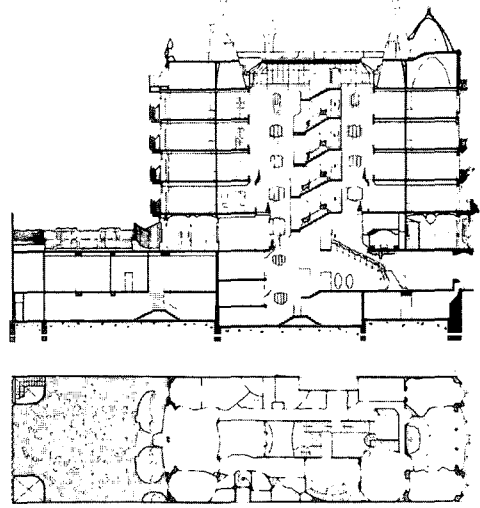


그림 3. 중정의 구조와 계단실, 창의 다양한 크기가 표현된 종단면도와 바트요 가족의 주택 평면도

1. 건축물은 미(美)보다 기능이 추구되어야 한다.

카사 바트요의 리모델링에서 중정(courtyard)⁴⁹⁾은 ‘건축에서 기능성은 미보다 우선하여 추구되어야 한다’는 가우디의 사고가 구체적으로 실현된 공간이라고 해석된다. 기존건물에는 중정이 6개로 분산되어⁵⁰⁾ 있었는데(鳥居德敏, 平成 12年), 중앙 계단실의 앞과 뒤로 나뉘어 있던 중정을 계단실과 통합, 확대시킴으로써 채광과 환기라는 두 목적을 충족시키도록 하였다. 즉, 계단실 벽을 헐어낸 위치에 1500 mm 높이의 유리 스크린을 설치하여 하나로 통합시키고, 천창을 설치하여 중정을 실내공간화 하였다<그림 3⁵¹⁾>. 중정의 공간적 볼륨을 확장하는 이 작업으로 15 m×50 m의 긴 장방향 주택의 각 공간들이 인공시설 없이도 쾌적성을 유지하게 되었다고 평가되는데⁵²⁾, 연구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공적인 조명과 환기 장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람에 필요한 조도

가 확보되며, 많은 방문객이 드나드는 상황에서도 쾌적한 실내공기가 유지되었다. 중정의 코어로 리모델링된 계단실에서 발견되는 것은 창문의 크기와 디자인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즉,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창문뿐 아니라 창문 아래 계획한 환기구의 크기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돌출시킨 지하층의 창은 상부 전면의 개구부를 유리로 하여 천창의 빛이 최대로 유입되게 하였다<그림 4>. 이는 2개층을 높이는 리모델링 작업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갈수록 실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기능적으로 보완한 성공적인 사례로서 기능을 추구하다가 보면 아름다움은 자연히 획득된다는 가우디의 사고가 구체화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창 하부에 개폐가능한 환기구<그림 5>를 계획한 것은

49) 건물 옥상에 천창이 있어 빛 우물과 환기구의 역할을 하는 open space를 스페인에서는 중정이라고 지칭한다.

50) 가우디가 1904년 10월 26일, 바르셀로나 시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용 도면 중에서 구(舊)건물의 평면도에 나타나 있다. 층마다 건물 2개씩 4개, 건물 중앙 전면(前面)의 계단실의 인접한 곳에 1개, 건물 중앙 후면(後面)에 1개로 모두 6개의 중정이 있었다.

51) 그림 3 출처: Ju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p. 203, p.200.

52) 鳥居德敏(平成 12年), 建築家 Gaudi: 歷史的世界와 作品, 中央公論美術批判,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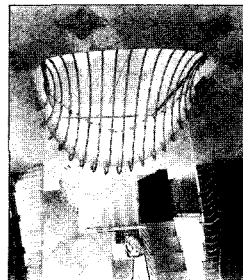


그림 4. 채광확보를 위한 사발모양 창 (위에서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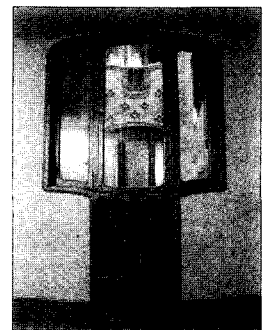


그림 5. 창 하부의 개폐가 가능한 환기구

독창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디자인, 크기는 다르나 응접실 문과 창 의 하부, 식당 전실의 천장 등의 환기구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추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밖에 출입구와 가까운 중정 쪽에 유리벽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수직동선을 단축하고 조도를 확보한 것도 기능성 추구의 사례로 평가되었다. 기능성 추구는 포물곡선형 다중 아치로 연결시켜 지중과 벽을 지지하게 한 다락에서도 발견되는데⁵³⁾, 이러한 시도는 다락을 외기의 영향을 덜 받고 전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가우디의 사고가 구체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우디는 다락은 건물의 본체와 구별되는 융통성 있고 가벼운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는데⁵⁴⁾ 연구자의 현장답사 결과 카사 밀라의 다락에서도 같은 원리의 이러한 아치구조를 발견하였다. 또 카사 바트요 다락 복도의 한 쪽 벽에 베네시안 블라인드의 원리를 응용한 디자인의 개구부가 발견되었는데 이것 역시 인공설비 없이도 환기와 조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우디의 기능주의적 사고가 실현된 우수한 사례라고 해석된다.

2. 색채는 건축물에 생명을 부여한다⁵⁵⁾

카사 바트요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파랑과 초록의 환상적인 색이 오묘하게 조화된 파사드⁵⁶⁾ 또는 윤기나는 다양한 색채의 타일과 중세 군인 투구 팔꿈치 부분처럼 생긴 용마루 타일이 조화를 이룬 지붕⁵⁷⁾이 있는 주택으로 평가받는다.

가우디의 건축물 대부분을 현지에서 관찰 비교한 결과, 카사 바트요는 '색채는 생명이고 죽음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색채가 없는 것이다. 색채는 건축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하며,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가우디의 사고가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작품이라고 판단된다. 리모델링 주택인 카사 바트요의

색채는 타일, 깨진 유리, 스테인드글라스, 스티코, 철재, 목재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되었는데, 전면 파사드, 응접실, 중정의 색채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면 파사드<그림 6, 7>는 석재의 자연색, 철재의 연노랑색, 깨진 타일의 다양한 색상과 주조색인 파랑색, 지붕 타일의 다양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⁵⁸⁾. 현장에서의 관찰결과, 파사드 전면 1층 기둥과 2층 테라스, 2, 3층의 창 장식은 몬쥬익(Montjuic) 석재의 자연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벽 마감은 파랑, 노랑, 초록 등의 색타일과 색유리를 흠뻑려 놓는 모자이크 기법 위에 군데군데 원형 타일을 배치한 독특한 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처리된 파사드는 햇빛을 받으면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푸른 파도와 같다.⁵⁹⁾ 또 용의 비늘같은 마름모형 지붕타일은 저채도의 빨강, 보라, 파랑, 초록으로 어지고, 용의 등뼈같이 구불거리는 형태의 용마루는 고채도의 파랑, 초록, 주황의 화려한 색상의 점이효과에 의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단순한 물리적 형태가 아닌 생명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사색상과 대비색상의 조화가 자유롭게 시도된 카사 바트요의 색채계획으로 인해서 가우디가 표현주의 건축가라고 평가되기도⁶⁰⁾ 하나 연구자는 카사 바트요, 구엘공원 이외에서는 이런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표현주의로 정의내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트요 주택의 응접실(reception room)은 거리 쪽에는 전면 창이, 좌우 양쪽에는 방과 통하는 대형문이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가 곡선, 곡면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창과 문 상부의 스테인드글라스도 자유로운 원형 또는 타원형이다. 주조색인 파랑의 명도와 채도를 다양하게 조화시킨 이 스테인드글라스는 햇빛이나 조명에 따라 수많은 다른 색으로 변하여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가우디 철학을

53) 지붕의 하중을 지지하려는 이러한 디자인은 연구자의 현장답사 결과, 테레지안 켈리지(1888-1890), 구엘 궁전(1886-1891), 카사 밀라(1906-1910)에서도 발견되었다.

54) Editorial Escudo De Oro(1998), Gaudi, p.87.

55) 색채분석을 무채색 화면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리한 작업이지만, 가우디의 카사 바트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색채를 제외시킬 수는 없으므로 내용에 포함시켰다.

56) Juan Bassegoda Nonell(2000), Antonio Gaudi-Master Architect.

57) Editorial Escudo De Oro(1998), Gaudi. p.182.

58) 이 색채작업은 스페인 건축가 Josep Maria Jujold와 공동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Xavier Guell Guix(2002), GaudiGuide, Editorial Gustavo Gili, SA p.182.

59) 이 파사드는 수채화가 그려진 커튼을 둘러쳐진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되기도 한다. 鳥居德敏(平成 12年), 建築家 Gaudi; 歴史の世界와 作品, 中央公論美術出版, p.192.

60) 가우디를 초현실주의 건축가로 평가하기도 한다. Xavier Guell Guix(2002), GaudiGuide, p.182.

반영하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또 응접실의 천장과 벽은 명도와 채도에 차이가 나는 등근 갈색 돌로 모자이크한 것처럼 보인다. 현장관찰에 의하면, 이는 스테코 채색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함을 유지하면서 착시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채색기법은 각이 없는 부드러운 면을 지닌 계단 홀, 식당 등의 천장과 벽, 후면 테라스로 나가는 식당 입구의 기둥에도 이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중정 또한 건물의 색채가 생명을 부여한다는 가우디의 사고가 잘 표현된 좋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현장 관찰 결과, 이러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우디가 사용한 방법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타일 색상의 채도와 명도를 점차적으로 차별화시키는 방법으로 실내의 조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층이 높을수록 고채도, 저명도의 짙은 파랑(navy blue and cobalt)을, 낮아질수록 저채도 고명도의 옅은 파랑(pearl grey and sky blue)을, 지하층에는 하양(white)에 가까운 고명도 색상의 타일을 배치함으로써 천창으로부터의 빛 반사효과를 이용하여 조도를 조절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점이(漸移)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두 종류의 색 타일을 교체하는 모자이크기법을 썼을 뿐 아니라 평 타일 사이에 일정한 간격마다 곡면의 부조(relief) 타일을 혼재시켜서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모서리 부분은 타일을 작은 크기로 세분화시키고 곡면타일을 사용하여 단절됨이 없게 하였다. 현장 관찰을 통해서 ‘중정을 보고 있으면, 수채화로 그린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는 Juan Jose Lahuerta(2000)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 카사 바트요의 중정은, ‘예술작품의 최고 수준은 조화이다. 조화는 작품을 강조하고 장식하는 빛에서 비롯되며, 건축은 빛을 배열, 정돈하는 작업이다.’라는 가우디의 사고가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주택 내외부에 시도된 카사 바트요의 이와 같은 색채계획은 물리적인 형태인 주택에 색채를 부여함으로써 생명을 갖게 하려는 가우디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예라고 평가된다.

3. 연속성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카사 바트요는 ‘자연에서 쉽게 발견되는 연속성

이 건축물에 적용될 때 아름다움이 창조된다.’는 가우디의 사고가 실현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카사 바트요가 아름다운 조각품 같다고 평가되는 것은⁶¹⁾ 가우디가 자연에서 발견한 연속성을 주택이 적용시킨 결과라고 해석된다.

현장에서 파사드를 관찰한 결과, 1,2층의 석재기둥부터 창, 지붕, 옥상의 굴뚝까지 단절됨이 없다. 특히, 1층에서 3층까지 이어지는 석재의 형태는 주초, 주신, 주두, 아치, 2,3층의 기둥과 창 난간까지 각기 조금씩 다른 모습이지만 전체가 하나같이 자연스럽게 연속되어 있다. 또 ‘건축구조의 형태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은 동물의 골격이다.’라는 직관력이 전면 파사드에 표현되어 가우디의 독창성이 더욱 돋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물의 정강이뼈 형상의 정교한 석재조각이 휘어감기는 듯한 선으로 표현된 기둥들은 1층, 2층 응접실의 발코니, 3층의 창까지 리듬감 있게 연속되면서 파사드를 감싸고 있다<그림 6>. 이외에도 4-6층의 두개골 형상의 창 난간,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의 지붕⁶²⁾, 춤추는 듯한 굴뚝 등 여러 형상들이 조화를 이룬 것<그림 7>은 곡선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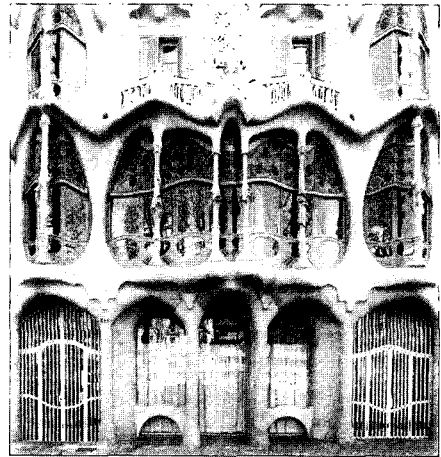


그림 6. 연속성이 완벽하게 추구되었다고 평가되는 카사 바트요의 전면 파사드

61) Ju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p. 37.

62) 카사 바트요의 지붕의 형태를 삼각형으로 하고 타워를 왼쪽에 두어 비대칭 균형을 꾀한 것은 카사 바트요 자체의 균형미를 꾀하고자한 의도도 있으나, 왼쪽에 위치한 건물인 전기고딕양식인 카사 아마틀레(Casa Amatller)의 포인트드 아치 지붕과 조화를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7. 다양한 형상들이 연속성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파사드 상부



그림 8. 공룡 등뼈형상의 역동적인 계단, 곡면 천장과 벽



그림 9. 박쥐 나는 형상의 외관을 한 응접실의 외부관

속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실내공간도 1층의 출입공간부터 2층의 바트요 주택까지<그림 8>, 중정의 계단실과 임대주택의 현관을 지나 다락의 실내와 계단, 옥상까지, 그리고 실내 조명기구, 창과 문, 가구에서 나타나는 연속성은 완벽한 조화를 이끌어내어 각 공간의 성격과 사용된 색채, 형태가 별개가 아닌 완벽한 하나임을 인식하게 한다고 평가된다.

카사 바트요의 연속성 추구로 인한 아름다움 창조에 기여한 요소는 아르누보 양식에서 이용되는 곡선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카사 바트요는 철을 재료로 식물의 넝쿨, 잎사귀, 꽃 등의 모티프가 평면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특성이 역동적으로 표현되고, 재료와 형태뿐만 아니라 3차원의 공간에서도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르누보와 차별화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카사 바트요에 이용된 재료는 몬주익에서 채취한 석재,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타일(평타일, 곡면타일, 사각형 타일, 원형타일, 부조장식 타일, 내화성 타일, 깨진 타일), 평유리, 곡면유리, 깨진유리, 스테인드글라스, 스테코, 시멘트, 목재, 철재 등으로 다양하다. 이와 같이 마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재료가 지닌 색채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복잡함이나 혼란스러움이 인식되지 않고 조화미를 느낄 수 있는 것 역시 연속성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또 가우디는 다양한 색상, 크기, 형태의 타일 그리고 깨진 유리 등과 같이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지닌 재료들을 하나의 집합체로 구성하는 모자이크 기법을 이용함



그림 10. 두개골 형상의 창 난간



그림 11. 정강이뼈형상의 창 장식



으로써 조화를 추구하였고 이러한 조화가 요소의 다양함이라는 조건을 압도함으로써 연속성으로 승화된 아름다움을 창조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 아름다움의 근원은 자연이다.

현장에서의 관찰결과, 카사 바트요에는 리듬(rhythm), 떨림(vibration) 등의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면서 자연계 생물의 유동적 형태나 곡선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형상이 많이 발견됨으로써 심미주의

(Aestheticism)의 극치라고 평가되는 아르누보의 반복기법으로 자연에서 추출해낸 요소들을 비대칭으로 표현하고, 주택의 장식요소를 유기적인 존재로 승화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신의 창조물인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사상은 러스킨(Ruskin)이나 비올레 르 듀크(Viollet-le-Duc)에 의해서 이미 전개되었지만⁶³⁾, 카사 바트요에는 이러한 사상이 보다 발전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보다 발전적 표현’이라고 하는 이유는 카사 바트요에 나타난 형태 또는 장식 문양들이 단순하게 자연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무엇을 창조해내기 위한 것과 똑같은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가우디 스스로가 창조해낸 새로운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카사 바트요에 나타난 디자인으로서 자연에서 비롯되기는 하였으나 자연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가우디의 독창성과 결합되어 나타난 형상의 예가 <그림 9~11>⁶⁴⁾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카사 바트요에 이용된 다양한 형상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독창성은 근본으로 돌아갈 때 창출되며, 근본은 신이 창조해 낸 자연이다.’라는 가우디의 사고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5. 생명이 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가우디가 리모델링한 주택인 카사 바트요를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자연과 같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정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연에는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는 일이 없다’는 가우디의 철학이 여러 형상으로 곳곳에 표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명’ 또는 ‘생명의 기원’을 상징하는 형상, ‘살아 있음’을 상징하는 영원한 변화를 암시하는 형상들의 사례 중의 일부를 제시하면 <그림 12~14>⁶⁵⁾와 같다.

카사 바트요 현장답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형상은 생명의 기원인 동시에 종말이 암시되는 사람의 뼈(파사드의 창에 이용된 정강이뼈와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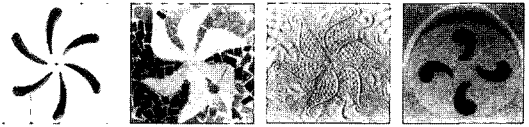


그림 12. 소용돌이 형상; 후면 파사드, 응접실 창 하부의 환기구



그림 13. 정강이 뼈 형상; 전면 파사드, 식당 문, 창 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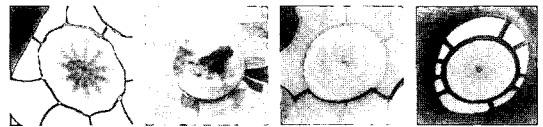


그림 14. 원의 형상; 응접실 스테인드글라스, 후면 테라스 벽

개골), 모든 생명의 잉태를 상징하는 소용돌이(응접실의 환기구, 식당문의 부조, 후면 파사드의 벽), 원형(응접실의 스테인드그라스, 후면 테라스의 벽), 나선형(출입구의 계단홀 난간, 응접실)이었는데 이러한 형상들에는 가우디의 생명에 대한 철학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카사 바트요에 나타난 이러한 형상들이 자연에 존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의 모방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성적, 합리적 그리고 고차원적인 수준의 아름다움으로 인지되는 이유는 자연에서 가져온 형상이지만 자연이 그것을 창조하는 것처럼 또는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 재창조하고 나름대로의 질서로 승화시켜 표현한 가우디의 독창성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VI. 결론 및 요약

가우디가 리모델링한 주택작품인 카사 바트요를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현장답사를 병행하여 리모델링의 내용과 함께 가우디의 건축적 사고가 주택의 외관과 실내에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한 해석을 목적으로 집행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하학적 조형시기와 장식적 조형시기를 거쳐

63) 가우디는 학창시절 철학, 미학에 관심을 가지고 러스킨(Ruskin)와 비올레 르 듀크(Viollet-le-Duc)의 저서를 읽은 바 있다. Ju an Jose' Lahuerta, Pere Vivas, Ricard Pla(2000), Casa Battlo, p.204.

64) 그림 9-11. 출처: 앞의 책, p.204.

65) 그림 12-14. 출처: 앞의 책, p.206-207.

가우디 예술의 절정기인 조각적 조형시기에 완성된 카사 바트요는 디자인작업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하기 쉬운 리모델링의 한계를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 가우디의 철학에 기초한 창의력으로 이전 주택과 완벽하게 차별되는 조형성을 추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리모델링 주택인 카사 바트요는 가우디가 성장하면서 자연에서 접한 농장의 식물과 곤충, 구리가 공 공장에서 보았던 양조증류용 파이프, 작업실에서의 목공 및 주물제작 경험이 역동적이고 환상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되고 승화되어 외관과 실내에 표현되었으며, 내외부의 형태와 색채가 연속성을 이룸으로써 주택 전체가 하나의 조각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형제, 조카 등 많은 가족의 요절을 지켜본 가우디는 주택 카사 바트요의 외관과 실내에 생명, 죽음, 운회(輪廻)를 상징하는 형상을 수없이 등장시키고, 생명을 붙여넣는 색채와 빛을 곳곳에 이용함으로써 단순한 물리적 형태로서의 주택이 아닌, 가우디의 철학이 시각적으로 구체화된 주택으로 창조해 해석할 수 있다.

4. 카사 바트요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특성은 자연의 형상이라고 유추되기는 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모방이 아닌, 가우디의 해석에 의해 재창조된 형상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과 이러한 형상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전체가 자연의 일부인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각은 카사 바트요를 방문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이되어 한 장소에 정지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5. 리모델링 주택인 카사 바트요는 채광과 환기를 건축구조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가우디의 기본 사고인 기능주의를 충족시켰으며, '건축에서 기능을 중시하다보면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획득된다.'는 그의 주장을 재확인시켜준 주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자유스런 곡선과 형태, 다양한 재료, 대담한 색채를 연속성으로 승화시킨 조화미를 지닌 주택인 카사 바트요를 리모델링한 가우디는 물리적인 매개물을 통해서 보다 근원적이고 본성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한 건축가, 자연과의 융화 그리고 자연의 재창조를 역동적으로 시도한 건축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우디가 리모델링한 주택인 카사 바트요를 주제로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작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택의 경제성 추구를 넘어서, 기능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에서 작은 자극으로 작용하여 리모델링의 패러다임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이대일(1991), 근대건축과 디자인, 미진사.
2. 이범재(1987), 우리에게 건축비평은 시작되었는가, 건축과 환경.
3. 조연자(2000), Gaudi의 건축에 나타난 조형성과 색채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함효경(1995),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작품을 응용한 의상 디자인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入江正之(1997), Gaudi論, 早稻田大學出版部.
6. 鳥居德敏(平成12年), 建築家 Gaudi; 歴史の世界と 作品, 中央公論美術出版.
7. Carlos Flores(2002), La leccion de Gaudi /The lesson of Gaudi, Espasa Calpe.
8. Como creo Gaudi arquitectura(1983), El mundo enigmatico de Gaudi. Instituto de Espanya.
9. Editorial Escudo De Oro(1998), Gaudi. Editorial Escudo De Oro, S.A.
10. ESARQ(Escuela Tecnica Superior Darquitectura) Universitat Internacional de Catalunya(2002), Gaudi a Paris L'any 1910-Gaudi.
11. Jori Bonet(2000), The Essential Gaudi, Portic, Barcelona.
12. Juan Bassegoda Nonell(2000), Antonio Gaudi -Master Architect, Abbeville Press Publishers.
13. Juan Bassegoda Nonell(1980), PROYECCION DE LA FIGURA DE GAUDI, Boletin de la Acadeia de Bellas Artes de San Fernando Separata de ACADEMIA, Primer semestre de 1980, Nu'mero 50.
14. Juan Bassegoda Nonell(2000), Conservador de la Real Catedra Gaudi, Gaudi Cornet(1852-1926), Real Catedra Gaudi.
15. Juan Jose Lahuerta(2000), Pere Vivas, Ricard Pla, Casa Battlo, Triangle Postals s.l.
16. Joan Castellar-Gassol(2001), Gaudi; The Life of Visionary, Edicions de 1984, s.l.
17. Xavier Guell Guix(2002), Gaudiguide, Editorial Gustavo Gili, SA.

(接受: 2004. 8. 16)